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영심¹, 한상미^{2*}

¹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Influence of Online lecture quality, Self-Leadership on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Youngshim Ko¹, Sang Mi Han^{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College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Provincial Geocha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 115명이었으며, 연구설계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셀프리더십($\beta=.431, p<.001$)과 온라인 수업의 질 하위요인인 수업환경($\beta=.314, p=.004$)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총 37.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을 위해 셀프리더십 함양과 온라인 수업 환경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온라인 수업의 질, 온라인 수업환경,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online lecture quality, self-leadership, and degree of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online lecture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academic self-efficacy.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115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and the study design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hat collected data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As a result of this study, self-leadership($\beta =.431, p<.001$) and online class environment($\beta =.314, p=.004$), a sub-factor of online lecture quality,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se variables explained 37.7% of the total variance in academic self-efficac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cultivating self-leadership and improving the online class environment in order to improve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taking online classe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Online lecture quality, Online class environment,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Sang Mi Han(y2k2509@nate.com)

Received January 25,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February 19,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COVID-19의 유행이 지속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따라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전면 시행이라는 전례가 없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중에서도 전공 교과목에 대한 실습 비중이 높은 대학의 경우에 전격적인 온라인 수업 시행으로 인해 교수자와 학생 상호 간에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1].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나 학습동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2]. 이에 학업 동기를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학업성취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3] 학업적 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선행연구에서 스마트러닝 교수법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며[5,6]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경우 학업 몰입이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이 학업 몰입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변화된 학습환경 속에서 주도적인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학업 상황 전반에 걸친 수행을 예측하고 교육적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문적 수행 및 성취 수준을 보다 잘 예측하기 위한 개념이다[8].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수행과 성과 측면에 적용되어 연구되었지만, 간호대학생이 겪는 학업 부담감과 면허 취득의 압박감은 학업의 어려움, 학교 부적응, 의도하지 않은 학업중단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9,10] 간호 교육 현장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1]. 학습에 대한 흥미와 만족이 높아지면 집중력 향상과 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증가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지식과 함께 기술을 습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13]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14]. 이에 전통적인 교육현장이 아닌 온라인 간호교육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의 학업성취 전략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도록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15] 학생이 스스로에게 주도성 및 열정을 동반하게 하여 학업에 대한 흥미와 학과 만족도를 높게 한다[16]. 또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개인적 성장의 영향요인이며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역할과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와 자기관리에 대한 자기 주도성이 요구되는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개념이다[18].

온라인 교육은 대인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노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매개 도구를 활용한 반복 학습과 본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 속도를 조절하면서 보다 많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부여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19]. 이에 대학들도 관련 기술을 수용하고 온라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20]. 그러나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제, 교수자와 학생 간의 제한적인 의사소통, 설명과 논의 부족, 지연된 피드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동기 저하, 동료와 교수자로부터의 고립감과 중도 탈락생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21-23]. 그리고 학습 성과의 점검과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24]. 이렇게 제기된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중심에 선 문제는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이다[25]. 온라인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으로 Kim [26]은 상호작용, 학습용 콘텐츠, 수업 여건을 제시하였으며 Chei와 Lee [27] 역시 상호작용, 수업내용, 학습환경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 대학생의 수업 만족,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26,2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향후 사회 변화와 함께 새로운 대학 교육 환경에서 온라인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해 학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비판적 사고 성향,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진로 태도 성숙도,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들이[28-31] 있었지만 온라인 수

업의 질,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의 질과 셀프리더십이 이들의 학업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자발적인 학습활동의 촉진과 학습의 능동적 주체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도 소재 G대학교에서 COVID-19로 인해 2020년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통계적 검증은 다중회귀 분석,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1- β) .80, 예측 요인 8개로 표본 수를 구하였을 때, 총 109명이 필요하였다. 탈락률 20%를 고려한 총 13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설문지 115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자가 보고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문항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문항은 성별, 연령, 종교, 학년, 평점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2 온라인 수업의 질

본 연구에서는 Chei [3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온라인 수업의 질 도구를 Kim [3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은 상호작용 4문항, 수업내용 8문항, 학습환경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우 그렇다' 1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느끼는 온라인 수업의 질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Kim [33]의 연구에서 측정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2.3.3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Houghton과 Neck [34]이 개발한 척도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를 Shin 등[35]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자기 목표 설정(Self-goal setting) 5문항, 자기 보상(Self-reward) 3문항, 자기 처벌(Self-punishment) 4문항, 자기 관찰(Self-observation) 4문항, 자기 단서(Self-cueing) 2문항, 자연적 보상(Natural reward) 5문항,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Visualizing successful performance) 5문항, 자기 대화(Self-talk) 3문항, 신념과 가정 분석(Evaluating beliefs and assumptions) 4문항으로 9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 등[35]의 연구에서 측정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2.3.4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Jang [3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의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아니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Jang [36]의 연구에서 측정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0$ 으로 나타났다.

2.4 연구 진행 절차

2.4.1 자료수집

2020년 1학기 15주를 온라인 수업으로 수강 한 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2일~10월 20일까지 2학기 대면 수업 기간 중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었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보조원이 즉시 회수하였으며 설문조사 완료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4.2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전 취약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교수가 아닌 연구보조원이 직접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자들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 수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한 후 모집하였다. 설문지에 작성된 모든 정보는 익명 처리되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였으며, 개인식별 가능한 어떠한 정보도 노출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를 위해 수집된 정보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4.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와 일원 분산분석(ANOVA)로 분석한 후 Scheffe-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

Table 1과 같이 대상자들의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수업의 질은 5점 만점에 평균 3.61점이었다. 하위 요인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수업내용'이 3.74점, '상호작용'이 3.62점, '수업환경'이 3.3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평균 3.73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자기 목표 설정' 3.69점, '자기 보상' 4.08점, '자기 처벌' 3.59점, '자기 관찰' 3.82점, '자기 단서' 4.02점, '자연적 보상' 3.62점,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3.67점, '자기 대화' 3.56점, '신념과 가정 분석' 3.77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gree of Online lecture qualit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N=115)

Variables	Categories	Range	M±SD
Online lecture quality	Class contents	1-5	3.74±0.56
	Interaction		3.62±0.71
	Class environment		3.39±0.77
	Total		3.61±0.58
Self-Leadership	Self-goal setting	1-5	3.69±0.60
	Self-reward		4.08±0.77
	Self-punishment		3.59±0.94
	Self-observation		3.82±0.57
	Self-cueing		4.02±0.80
	Natural reward		3.62±0.58
	Visualizing successful performance		3.67±0.75
	Self-talk		3.56±0.94
	Evaluating beliefs and assumptions		3.77±0.63
	Total		3.73±0.46
Academic Self-efficacy		1-5	3.71±0.49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Table 2와 같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6.5%, 여성 83.5%이었고 평균연령은 22.6세였으며 종교는 '있다'가 41.7%, '없다'가 58.3%이었다. 학년은 1학년 19.1%, 2학년 31.3%, 3학년

Table 2. Degree of Online lecture qualit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N=1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Online lecture quality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M±SD	t/F (ρ) Scheffe	M±SD	t/F (ρ) Scheffe	M±SD	t/F (ρ) Scheffe
Gender	Male	19(16.5)	3.73±0.62	0.995 (.322)	3.66±0.58	-.758 (.450)	3.75±0.54	0.398 (.691)
	Female	96(83.5)	3.58±0.57		3.75±0.43		3.70±0.49	
Total		22.57±2.87						
Age(yr)	≤20	21(18.3)	3.89±0.69a	3.390 (.037) a)b	3.89±0.52	1.664 (.194)	3.79±0.57	0.338 (.714)
	21~23	71(61.7)	3.52±0.51b		3.71±0.43		3.70±0.47	
	≥24	23(20.0)	3.60±0.63		3.66±0.47		3.68±0.50	
Religion	Yes	48(41.7)	3.63±0.59	0.401 (.689)	3.80±0.43	1.388 (.168)	3.81±0.47	1.785 (.077)
	No	67(58.3)	3.59±0.57		3.68±0.47		3.64±0.50	
Grade	Grade 1	22(19.1)	3.97±0.69a	4.391 (.006) a)b	3.93±0.52	2.119 (.102)	3.79±0.60	1.887 (.136)
	Grade 2	36(31.3)	3.55±0.44		3.63±0.49		3.65±0.49	
	Grade 3	23(20.0)	3.40±0.52b		3.70±0.35		3.55±0.38	
	Grade 4	34(29.6)	3.57±0.59		3.73±0.41		3.83±0.47	
Average rating	≥ 4.0	15(13.0)	3.75±0.43	1.291 (.279)	3.95±0.42	2.251 (.110)	3.84±0.38	0.691 (.503)
	3.0~3.99	94(81.7)	3.57±0.60		3.69±0.44		3.68±0.48	
	< 3.0	6(5.2)	3.86±0.58		3.73±0.46		3.79±0.89	

20.0%, 4학년은 29.6%였으며 전공 만족도는 ‘만족’ 73.9%, ‘보통’ 20.9%, ‘불만족’ 5.2%이었다. 평균평점은 ‘4.0점 이상’ 13.0%, ‘3.0~3.99점’ 이 81.7%, ‘3.0점 미만’ 이 5.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질은 연령(F=3.390, p=.037), 학년(F=4.391, p=.00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정 결과에서 연령을 보면 ‘20세 이하’가 ‘20세 이상’보다, 학년은 ‘1학년’이 ‘2학년’ 이상보다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3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Table 3과 같이 대상자들의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내용(r=.355, p<.001), 상호작용(r=.374, p<.001), 수업환경(r=.484, p<.001), 셀프리더십(r=.552,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Online lecture qualit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N=115)

Variables	Online lecture quality			Self-Leadership r(p)	Academic self-efficacy r(p)
	Class contents r(p)	Interaction r(p)	Class environment r(p)		
	1				
Class contents					
Online lecture quality	.663**	1			
Interaction	<.001				
Class environment	.683**	.606**	1		
	<.001	<.001			
Self-Leadership	.284**	.375**	.360**	1	
	.002	<.001	<.001		
Academic self-efficacy	.355**	.374**	.484**	.552**	1
	<.001	<.001	<.001	<.001	

*.α.05 **α.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Academic Self-efficacy

(N=11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231	.350		3.522	.001
	Class contents	.005	.350	.006	.053	.958
Online lecture quality	Interaction	.012	.099	.018	.171	.865
	Class environment	.200	.073	.314	2.932	.004
Self-Leadership		.466	.068	.431	5.306	<.001

Adjusted R²=.377 (F=18.218, p <.001), Durbin-Watson: 2.059 VIF:1.204~2.298

3.4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와 같이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IF)가 1.204~2.298로 나타나 10보다 크지 않았으며 공차한계 역시 0.435~0.831로 0.1값보다 커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2.059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차항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온라인 수업의 질 하위 영역인 수업내용, 상호작용, 수업환경과 셀프리더십을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결과 수업환경($\beta=.314$, $p=.004$)과 셀프리더십($\beta=.431$, $p<.001$)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변인의 총 설명력은 37.7%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2020년 1학기 동안 전면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먼저 온라인 수업의 질은 5점 만점에 평균 3.60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하위 영역의 '수업내용'에 대한 점수가 3.7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수업 콘텐츠의 효용성 중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반복학습을 통해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다음은 '상호작용'과 '수업환경'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 및 동료 학생과의 소통과 상호작용 부족,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부족을 느낀다고 한 연구 [24]와 일부 유사한 결과이다. Swan [37]은 온라인 환경

에서 상호작용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에 대한 성취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에 능동적인 상호 소통 방법에 대한 보완과 온라인 수업환경을 위한 인프라,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과 같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73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셀프리더십 평균 점수는 3.49점이었으며 [14]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43점으로 [38]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경우에서 셀프리더십 평균은 3.62점이었으나 [39] 온라인 수업만 진행한 본 연구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화된 대면 수업 일정에 비해 스스로 학습계획과 목표를 세워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터득해가는 온라인 수업과정을 통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셀프리더십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 중에서 '자기 보상'과 '자기 단서'가 4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자기 대화'가 가장 낮은 3.56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연구 [39]를 살펴보면 '자기 보상' 4.00점, '자기 단서' 3.99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고 Kim과 Park 등 [40]의 연구는 '자기 보상' 3.90점, '자기 기대' 3.73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공통적으로 '자기 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간호대학생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71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대학생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83점으로 높게 나타나 [36] 온라인 수업만을 진행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효능감을 측정된 연구 [41]에서는 5점 만점에 3.14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 1학년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각각 3.00점과 3.81점으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30,38]. 이 같은 결과는 온라인

과 오프라인 수업환경, 그리고 학년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비교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 '온라인 수업의 질' 만이 '연령'과 '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세 이하인 1학년이 20세 이상, 2학년 이상 학년에 비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게 평가한 것은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교양과목과 전공기초 과목을 새롭게 접하면서 상급학년에 비해 학습 부담감이 적다는 것과 처음 경험하는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비교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온라인 수업의 질 하위 영역인 수업내용, 상호작용, 수업환경 및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42]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반면 온라인 수업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기가 어려워 이들 간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수업의 질이 높다고 느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질의 온라인 수업과 셀프리더십 강화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라인 수업의 질 하위 요인인 '수업환경', 과 '셀프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Jung [42]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43]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44]. 따라서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업환경'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온라인 수업의 질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온라인 수업 시 수업환경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학 온라인 원격교육의 실태를 살펴본 연구[24]에 따르면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업을 위한 안정적인 온라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기술 지원을 기본적인 준비사항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온라인 수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셀프리더십과 수업환경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셀프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의 적용과 양질의 온라인 수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온라인 수업의 질,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온라인 수업의 질 하위 요인인 수업환경과 셀프리더십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온라인 교육현장의 수업환경을 개선 발전시키고 셀프리더십을 함양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몇가지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출한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적인 조사연구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적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H. Kim & Y. H. Cho. (2018). Proliferation of Online Learning and the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Future University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4(4), 51-78. DOI :

- 10.26857/JLLS.2018.11.14.4.51
- [2] S. J. Park. (2020). Influence of Teaching Presence and Self-determination on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y, Academic Efficacy, Critical Thinking Tendency, and Learning Flow in Online Classroom Environ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4), 171-198. DOI : 10.22251/jlcci.2020.20.24.171
- [3] Y. J. Joo, A. K. Chung & A. R. Han. (2011).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tress,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Environment, School flow, Learning Persistence in Cyber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4(3), 73-82.
- [4] T. Goetz et al. (2012). Students' Emotions During Homework: Structures, Self-concept Antecedents, and Achievement Outcome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2), 225-234. DOI : 10.1016/j.lindif.2011.04.006
- [5] J. H. Seo, J. P. Jeong & E. J. Choi. (2016). The Effects of Smart Learning on the Academic Performance of Pediatric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1), 784-795. DOI : 10.5392/JKCA.2016.16.11.784
- [6] E. J. Ki, D. H. Seo & S. A. Chung. (2018). The Effects of the Convergence Study about Smart Learning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519-527. DOI : 10.15207/JKCS.2018.9.11.519
- [7] S. M. Lim & Y. R. Yeom. (2020).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to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both Online and Offline Lectur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1), 107-116. DOI : 10.22156/CS4SMB.2020.10.11.107
- [8] A. Y. Kim & I. Y. Park.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9(1), 95-123.
- [9] S. L. Do. (2005). Emotion and Classroom Talk : Toward a Model of Affect in Students' Experiences of Classroom Discuss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1), 17-39.
- [10] M. L. Malmivuori. (2006). Affect and Self-regulation.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63(2), 149-164. DOI : 10.1007/s10649-006-9022-8
- [11] K. McLaughlin, M. Moutray & O. T. Muldoon.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and SelfEfficacy in the Selection and Retention of Successful Nurs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1(2), 211-221. DOI : 10.1111/j.1365-2648.2007.04492.
- [12] R. W. Ma & E. J. Lee. (2017). Factors Affecting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0), 521-531. DOI : 10.14257/ajmahs.2017.10.90
- [13] S. J. Kang, E. J. Kim & H. J. Shin. (2016). Convergence Study about Problem-based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Academic Self-efficacy,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2), 33-41. DOI : 10.15207/JKCS.2016.7.2.033
- [14] E. S. Lee & E. J. Bong. (2017).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2), 107-114. DOI : 10.14370/jewnr.2017.23.2.107
- [15] C. P. Neck, G. L. Stewart & C. C. Manz. (1995).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1(3), 278-302. DOI: 10.1177/0021886395313004
- [16] H. J. Park.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27-236. DOI : 10.5977/jkasne.2015.21.2.227
- [17] Y. J. Lee & K. S. Jung. (2018).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and Campus-life Satisfaction Level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 391-410. DOI : 10.21509/KJYS.2018.01.25.1.391
- [18] J. I. Kim. (2018).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to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574-583. DOI : 10.5762/KAIS.2018.19.12.574
- [19] Y. S. Lee & D. K. Shin. (2020). An Investig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Online Classes in the Untact Era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urriculum Evaluation*, 23(4), 39-57. DOI : 10.29221/jce.2020.23.4.39
- [20] S. Dhawan, (2020). Online Learning: A Panacea in the Time of COVID-19 Crisi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Systems*, 49(1), 5-22. DOI : 10.1177/0047239520934018
- [21] M. Harker & D. Koutsantoni. (2005). Can it be as Effective? Distance Versus Blended Learning in a Web-based EAP programme. *ReCALL: the Journal of EUROCALL*, 17(2), 197-216. DOI : 10.1017/S095834400500042X
- [22] T. M. Karkar-Esperat. (2018).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Challenges and Learning Experiences in Online Classe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8(4), 1722-1735.

- DOI : 10.5281/zenodo.1468076
- [23] Y. K. K. Yim. (2011). Second Language students' Discourse Socialization in Academic Online Communities.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67(1), 1-27.
DOI : 10.3138/cmlr.67.1.001
- [24] D. J. Lee & M. S. Kim. (2020).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s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359-377. Name of Web Site. <http://www.kamall.or.kr>
- [25] N. Y. Kim. (2020). A Study on the Quality of Classes, Class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formance of Tourism Education in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of COVID-19. *Journal of Hotel & Resort*, 19(5), 207-226.
- [26] J. S. Kim. (2007). *The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e-Learning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Busan.
- [27] M. J. Chei & J. Y. Lee. (2017).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Instructional Quality, Academic Emotions, Perceived Achieve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Offline and Online University Lectur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3(3), 523-548.
DOI : 10.15833/KAFEIAM.23.3.523
- [28] O. S. Lee. (2020). The Effect of the Problem-Based Learn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Diagnostic Tests and Nurs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5), 279-285.
DOI : 10.14400/JDC.2020.18.5.279
- [29] M. J. Sim & H. S. Oh. (2012).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6), 328-337.
DOI : 10.5392/JKCA.2012.12.06.328
- [30] S. 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Adult Nurs*, 25(5), 559-566.
DOI : 10.7475/kjan.2013.25.5.559
- [31] J. H. Cho, K. H. Baek & M. O. Cho. (2019).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passionate Competence on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6), 257-265.
DOI : 10.14400/JDC.2019.17.6.257
- [32] M. J. Chei. (2016).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Instructional Quality, Academic Emotions, Perceived Achieve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Offline & Online University Lectur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33] S. E. Kim. (2019). *The Effect of Online Instructional Quality on Perceived Usefulness, Learning Flow and Satisfaction in Flipped Learn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34] J. D. Houghton & C. P. Neck.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 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DOI : 10.1108/02683940210450484
- [35] Y. K. Shin, M. S. Kim & Y. S. Han.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3), 313-340.
- [36] Y. S. Jang. (2019). *Discriminant and Predictive Analyse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s according to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Major Relevance, Academic Self-Efficacy, Occupational Enga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37] K. Swan. (2004). Learning Online: Current Research on Issues of Interface, Teaching Presence and Learner Characteristics. In J. Bourne & J. C. Moore (Eds.), *Elements of Quality Online Education: Into the Mainstream*. Needham, MA : Sloan Center for Online Education. 63-79. Name of Web Site, <http://sloanconsortium.org/node/925>
- [38] J. H. Kwon & B. S. Choi. (2020).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 For First Grade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5), 297-304.
DOI : 10.14400/JDC.2020.18.5.297
- [39] S. M. Lim & Y. R. Yeom. (2020).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to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both Online and Offline Lectur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1), 107-116.
DOI : 10.22156/CS4SMB.2020.10.11.107
- [40] S. H. Kim & S. Y. Park. (2014).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557-1565. DOI : 10.5762/KAIS.2014.15.3.1557
- [41] M. S. Ko. (2019).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 Health Commun*, 14(2), 85-92.
DOI : 10.15715/kjhcom.2019.14.2.85
- [42] Y. H. Choi & C. S. Jung. (2015).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Impower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604-4613.
DOI : 10.5762/KAIS.2015.16.7.4604
- [43] Y. J. Lee. (2012).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Level on Campuslife Satisf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44] H. J. Park.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27-236.
DOI : 10.5977/jkasne.2015.21.2.227

고 영 심(Youngshim Ko)

[정회원]



- 2016년 2월 : 창원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20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박사 수료
- 2021년 3월 ~ 현재 :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외상 후 성장, 건강교육

· E-Mail : nrkys@naver.com

한 상 미(Sang Mi Han)

[정회원]



- 2015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20년 6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웰니스, 건강증진
- E-Mail : y2k2509@nate.com